

# 金立之撰 新羅 聖住寺碑<sup>①</sup> (續)

黃 壽 永

忠南 保寧郡 嶺山面 聖住里에 遺墟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聖住寺址에 대하여 필자는 해방 후부터 오랫동안 注目을 하여 왔다. 더욱이 이곳에는 신라말 九世紀로 추정되는 石塔 四基가 현존할 뿐 아니라 崔致遠撰 朗慧和尚碑가 健在하고 있어 일찍부터 신라 四山碑의 하나로서 人口에膾炙되어 왔다. 그리하여 一九六〇年代에 들면서 이 寺址로부터 兩回에 걸쳐서 新羅의 斷碑 三個石이 發見되므로써 이 寺址에는 上記 四山碑 以外에 따로 古碑 二基가 原在하였던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다.

이같은 사실은 동시에 寺址로부터 國立 扶餘博物館으로 搬移된 螭首와 龜趺 破品の 정리에서 二座分의 것임이 分明하므로써 그 뒷받침이 되기도 하였다. 그리하여 필자는 이같은 三個碑片중의 大小二片이 翰林郎阿浪 金立之所撰碑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 動機는 全南 求禮 華嚴寺의 鄭老師가 一九六八年 八月 그의 入寂直前에 鄭明鎬氏를 통하여 필자에게 傳交한 寫本 一冊에서 전혀 豫期치 못하였던 「崇嚴山 聖住寺 事蹟」<sup>②</sup>을 入手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. 필자는 그 직후 이 「事蹟」의 出處를 직접 老師에게 물고자 華嚴寺로 달려갔으나 때는 이미 臨終이 가까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. 그러나 老師의 引導로서 필자는 다시금 이 重要寺墟에 着眼케 되었으며 그 翌年에는 聖住寺址의 一次 調査를 하였다. 그리하여 朗慧和尚 八角浮屠石材의 發見<sup>③</sup>, 이곳 三層石塔 三基의 새로운 解釋, 巨大한 鐵像台座<sup>④</sup>의 發掘, 그리고 百濟 蓮花文瓦當의 收拾으로서

聖住寺의 前歷이 바로 百濟 烏舍寺<sup>⑤</sup>임을 確認하게 되었다. 이때 上記 한 二基의 龜趺가 있던 자리를 다시 發掘하였으나 새로운 碑片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.

## 二

이같은 第一次 寺址調査가 東國大博物館의 主管으로 實施된 후 이 寺址에 대한 注目은 現地(隣近 住民)뿐 아니라 扶餘의 百濟文化研究會(會長 洪思俊 前扶餘博物館長)의 踏查로서 나타났다. 그리하여 前者에 의 한 寺址濫掘로서 土製 佛頭小片의 流出이 계속되었으며 後者에 의하여서는 그 次外에 많은 在銘瓦片뿐 아니라 一九七一年 가을에는 마침내 寺址內 民家 石牆 사이에서 碑片 二個를 檢出함에 이르러 새로운 成果를 얻을 수가 있었다. 이 碑片 大小二個는 今年 七月에 이르러 扶餘博物館에 移管되어서 陳列되었는바 그사이 發見者의 厚意로서 그 原石과 拓本을 거듭 조사할 수 있었다. 그리하여 필자는 前에 필자가 조사발표한 바 있는 金立之撰 聖住寺 事蹟碑片의 新片임을 곧 알 수가 있었으며 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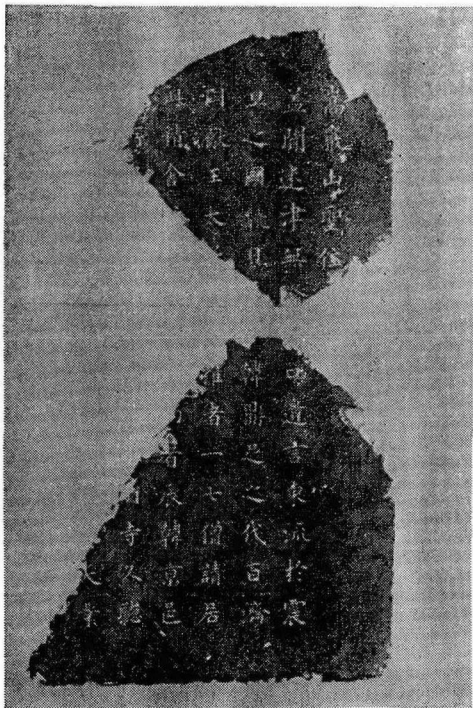


圖 1. 碑片 拓本

육이 필자가驚喜한 것은 이들 二箇新石이 모두 上記碑의 初頭に 해당할 뿐 아니라 兩個石이 각기 上下端片이어서 서로 碑文이 連續된다는 사실이다. 먼저 上下 各片에서 解讀된 碑文은 다음과 같다.

第一石(上端) 題目 및 第一行—第五行⑥

嵩巖山聖住

- (1) 盖聞迷津無際
- (2) 旦之國醜貝
- (3) 國獻王太子
- (4) 此精舍
- (5) □所□

第二石(下端) 第一行—第六行⑦

- (1) □遺言東流於震
- (2) 韓鼎足之代百濟
- (3) 推者一七僧請居
- (4) □者辰韓京邑
- (5) □寺久聽
- (6) 天業

以上에서 同一碑의 上下 兩端片으로 추정하고 上下가 連續되는 行數만을 적어보면 第二石의 第一、二、三行에서 第一石의 第二、三、四行으로 다음과 같이 判讀할 수가 있다.

……遺言東。於震」旦之國醜貝……(第一行↓第二行)  
 ……韓鼎足之代百濟」國獻王太子……(第二行↓第三行)  
 ……推者一七僧請居」此精舍……(第三行↓第四行)

위에서 먼저 震旦之國이라 함은 우리나라를 指稱하고 있다. 다음에 (三)國鼎足之代에 百濟國獻王太子라 하였는데 이곳에 보이는 獻王은 곧 百濟의 惠王을 가리키는 바 그를 이같이 부르는 것은 三國遺事 王曆篇 百濟第二十八 惠王條에 「云獻王」이라 있음에서 틀림이 없을 것이다. 百濟의 惠王을 獻王이라 記錄한 것은 오직 이 王曆에서 볼 수 있었던 바 이제 그것을 신라 九世紀의 金石文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또한 매우

所重하다. 그리하여 獻王太子는 곧 百濟의 法王을 가리키고 있는 바 이는 聖住寺의 前身인 百濟 烏合寺의 創建과 관련되는 甚중한 文句라 하겠다. 그 까닭은 上記한 崇巖山聖住寺事蹟(寫本) 初頭에서

聖住禪院者。本隋陽帝大業十二年乙亥。百濟國二十八世。惠王子法王所建。烏合寺。戰勝爲冤魂願昇佛界之願刹也。

라 하였기 때문이다. 그러나 隋陽帝의 大業十二年乙亥(十二年은 丙子인 甲子支에 따르면 十一年이 된다)는 百濟 武王 十六年(서기 六一五年)에 해당하고 있으므로 上記한 事蹟에서 惠王子 法王이라 한 것과는 서로 年代가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現段階로서는 金石文과 事蹟의 符合에서 百濟 烏合寺의 始建은 이 聖住寺碑의 記文에 따라서 百濟 法王(獻王太子)와 관계된 것으로 추정하여 두고자 한다. 그리고 후시 그 畢功年代로서 大業乙亥年(武王 十六年)을 기록한 것이나 아닐까 한다.

끝으로 「一七僧請居此精舍」라 한 것은 또한 寫本 事蹟에서 「僧裕寂梵行志崇三人先居之固請住之 文聖大王亦遣宰相魏昕春祈請居因住錫焉」이라고 하였으나 이와 관계되는 文句라고 速斷할 수는 없을 것이다.

### 三

다음에 이번의 新片 二箇石中 下端石에는 그 밑에 龜趺에 插入되었던 축이 그대로 남아 있다. 그리하여 그 길이와 두께를 알 수 있음에서 前年 扶餘博物館으로 移管된 龜趺破品 二破中보다 完全한 二座가 이에 該當됨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도 또한 多幸이라 하겠다. 이 聖住寺의 螭首는 또한 一九六〇년에 收拾된 大小二片의 聖住寺碑中 大片이 上端部에 해당하여서 그 上緣에 또한 螭首에 插入되었던 축이 남아 있으므로서 거의 完全의 螭首를 온을 扶餘博物館에서 指目할 수가 있다. 그리하여 기왕 前後二回에 수습된 大小 各二、計 四個의 碑石破片을 통하여 碑身上下의 部石을 또한 推定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.

이들 螭首와 龜趺는 그 樣式이 또한 特異하여서 前者에는 中央에 圓紋이 하나 있고 그 둘레에 雲龍文이 새겨 있으며 後者는 尾部가까이 龜甲

文이 있으나 背面 前半에는 翼文이 새겨져 있는 것이 또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.

이상에서 필자는 聖住寺址에서 새로 收拾된 碑片 二個石이 또한 일찌기 소개한 바 있는 金立之撰 聖住寺碑의 것으로서 그 初行에서 五、六行에 이르는 上下의 片石임을 말하였다. 그리하여 上下에서 連結되는 碑文에서 「百濟國獻王太子」나 한 것을 考察에서 미루어 百濟代 法王 創建의 烏舍寺와 관련되는 文字로 보고자 하였다. 이와 동시에 寺址에서 수습된 螭首 등 石造物의 復元考察에 도말及하였다. 新羅의 翰林郎 阿浪 金立之는 新羅 文聖王代에 활약한 人物로서 그에 앞서서 入唐留



圖 2. 螭首(國立扶餘博物館에 移置함)

學한 사실이 三國史記

(卷十 肅德王 十七年(八二五) 五月條)에 明文이 있다. 그가 간지 一千一百餘年을 지나 그가 마련한 이 碑片을 다시 金對함에 또한 感懷가 있다고 하겠다. (一九七二年 十月 一日 扶餘)

① 拙稿…金立之撰 新羅 聖住寺碑(文化財) 第四號 文化財 管理局刊 一九六九年 九月)

② 崇巖山聖住寺蹟은 上註(附錄 一)로 발표하였으되 그 앞서서 는 「考古美術」九卷 九號(一九六八年 九月)에 실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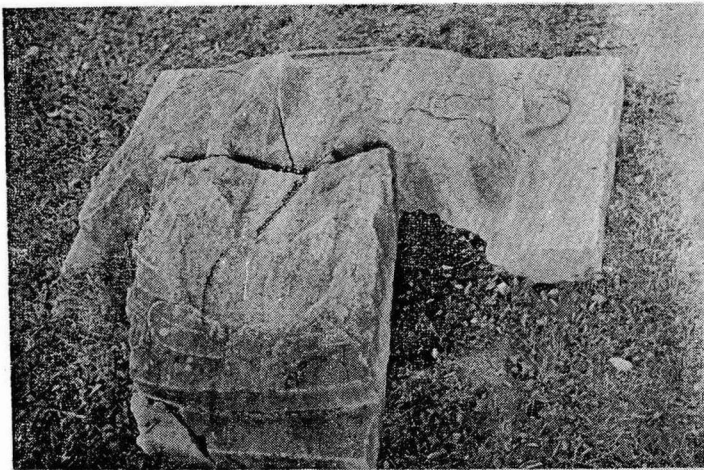


圖 3. 龜趺(國立扶餘博物館에 移置함)

③ 拙稿…新羅 聖住寺 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의 調査(「考古美術」九卷 十一號)  
 ④ 洪思俊…百濟烏舍寺考(「考古美術」九卷 十一號)  
 ⑤ 三國史記 百濟本紀 義慈王十五年夏五月條에 「驛馬 北岳烏舍寺鳴迦佛日死」라 있다. 三國遺事 卷一 太宗春秋公條에 「現慶四年 己未 百濟烏舍寺 亦云 烏舍寺 有大赤馬晝夜六時 遶寺行道」  
 李能和…朝鮮佛教通史 上卷 一〇四頁 無染國師碑文中 「易寺榜爲聖住」 밑에 註記하여서 「寺舊名烏舍寺」라 한 것은 그 出典을 알 수 없으나 事蹟에 의한 듯하다.  
 ⑥ 三角形의 碑文面을 남겼으되 그 밑에 龜背에 挿入키 위한 柄이 남아 있다.

碑面은 高와 幅이 二十九 cm、厚가 二十四 cm이며 柄은 長二十八 cm 高十八 cm 厚十六 cm 三 cm 이다.  
 ⑦ 碑面만으로서 不整 四角인데 高二十二 cm 幅二一·五 cm 이다.  
 ⑧ 이 片片의 上柄의 크기는 高十一 cm 幅十七 cm 이며 螭首孔은 寬이 十三 cm 底幅 十八 cm 長은 六十八 cm 이다.